

다자간(Multi-sided) 연결을 고려한 데이터 플랫폼 및 기술 공유 환경

김학성[†]

DNV GL

(hag.sung.kim@dnvgl.com[†])

현재와 같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드웨어적 발전과 네트워크 연결 속도의 향상으로 인해 대용량 데이터의 연결 및 처리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, 이에 기반한 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생산 가능성이 점점 확대 되고 있다. 이에 대해 데이터 가치 생태계를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DNVGL에서는 다자간 연결 및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플랫폼(Veracity)를 개발하였고 사용자간 내/외부로의 데이터의 공유, 분석 및 API, 어플리케이션 공유 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추진 하였다. Veracity는 데이터의 분석 및 벤치마킹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소스 구축, 필터링 및 분류와 통합 기능을 지원하며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.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API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, 서비스 및 데이터 소스와 관련한 서비스를 Veracity내의 사용자들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이익모델 개발이 가능 하다. 이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의 생산, 및 소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.